

# 연길시 봄파종 위한 농업물자 비축 착실히

### —3농 법률 보급과 가짜 농자재 100일 단속행동



연길시 재배자들이 농업물자상점에서 봄파종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있다.

봄철 농사치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길시에서는 량식작물 생산 목표를 적극 착각하고 농업물자 비축을 제때에 파악하여 농업재배자들의 준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연길시 량식작물 파종면적은 26만무, 년간 종자 사용량은 490톤, 화학비료 사용량은 9,700톤, 농약 사용량은 148톤으로 예상된다. 연길시에 있는 주요 농자재 판매업체에서는

왕년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손써 준경에 필요한 농업물자 확보에 나섰다. 연변농업농업물자상점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옥수수, 콩 등 종자와 각종 화학비료를 준비해 재배자들에게 공급, 사장 리단송은 농자재 조달의 고봉기가 이미 지나갔으며 2천여톤의 비료와 종자 70만근을 판매했다면서 "고봉기 때에는 하루에 100여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농자재를 구입했다. 농자재 판매는

보통 설 전후가 성수기이며 80%의 재배자들이 이미 구매를 마쳤다. 3월 이후에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겨울 농한기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연길시 조양전진 류신촌 강해림은 330무의 밭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량곡재배전문호인데 올해 20톤의 화학비료와 1,000근 이상의 종자를 구입하여 봄철 농사치비를 마쳤다. 강해

림은 "구매했던 종자와 비료를 이미 대부분 집으로 실어온 상황이며 올해는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4월 중하순부터 봄파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연길시사법국 삼도만사법소에서는 관할구역내에서 법률 보급 활동을 조직하고 관할구역의 군중과 상인들에게 <민법>, <토지관리법>, <농촌토지계약법>, <종자법> 등 법률 보급 자료를 배포하여 종자, 화학비료, 농약과 지면파복비닐의 진위 식별, 토지도급양도계약, 재배회수계약, 대출 등 농민들이 관심하는 법률지식을 둘러싸고 해독했다.

농업물자는 농업생산의 기초이며 농자재의 우월은 농업생산 안전과 농산물 품질 안전, 재배호들의 리익과 직결된다. 이에 봄철 농사치비와 동시에 연길시농업농촌국은 연길시 공안국,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100일간의 2024년 농업물자 가짜 제품 단속을 실시해 전 시 80여개 농업물자상점을 검사함으로써 농업물자의 품질을 보장하고 농업생산 안전과 농산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연길시에서는 4개 진 관할 행정촌의 트랙터, 연합수확기에 대한 년간 안전기술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춘경비경 생산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리철수기자

## 올해 알곡생산 목표 1조 3,000억근 이상



전국인대 14기 2차 회의의 심의에 제정된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알곡생산 1조 3,000억근 이상 목표를 명확히 했다. 관건을 둘러싸고 일련의 실제 방법과 강경책이 이미 배치되었다.

경작지를 틀어준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알곡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당정부의 동등한 책임을 전면 실시하고 경작지 보호와 알곡 안전 책임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제기했다. 고표준 농토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동북의 흑토지역, 평원지역, 수리관개 조건을 구비한 지역의 경작지를 고표준 농토로 건설하며 중앙과 성급의 투자 보조 수준을 적당히 높인다. 퇴화 경작지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고 알카리성토지의 종합리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종자를 틀어준다. 정부사업보고는 종자산업진흥, 농업의 관건적인 핵심기술난제 해결 강도를 높일 것을 제기하였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종자산업진흥 행동을 힘써 실

시하여 자원 보호, 육종 혁신, 품종 테스트, 우량종 번식기지 등 대상 건설을 지지하였으며 올해는 생산에서 시급히 수요되는 자주적인 우량 품종을 선정, 보급하고 종자산업 분야의 국가적인 중대한 혁신 플랫폼 건설을 다그치게 된다.

두가지 적극성을 높인다. 알곡재배 농민과 주요 생산지의 '두가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알곡재배 농민들의 수익 보장 기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알곡생산 전문현의 지지 강도를 높이고 주요 생산지의 리익보상기제를 완벽화한다.

농업농촌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밀과 올벼의 최저 수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국 3대 주요 알곡의 가격 보험과 재배 수입 보험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며 고표준의 농토 건설 보조 수준을 높이고 알곡생산 전문현에 대한 자금의 부대적인 요구를 취소하게 된다.

/ 신화사

## 기상부문, 주요 작물 기상관측 규범 강화



얼마전 중국기상국에서는 <농업 기상관측 규범>을 출범하여 벼, 밀, 옥수수, 목화, 유채, 콩 등 6가지 주요 작물 관측 규범을 강화하였다. 이 규범은 2024년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기상국에서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작물 관측 규범을 조정, 최적화하여 농업 기상 관측, 예보 및 작물의 기후 평가 등에 과학적인 의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대화한 농업기상 업무, 서비스와 과학연구의 수요에 적응하여 농업 재해를 방

지고 감소하여 국가의 식량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기상부문은 작물 관측 강화를 통해 작물의 생장발육 법칙을 일층 파악하고 작물의 생장발육과 생산량의 형성 및 품질에 미치는 농업 기상 조건의 영향을 식별하며 농업 기상재해 및 병충해의 시공 분포 법칙을 규명하고 농업 재배 구조의 조정, 작물 재배 방식의 최적화와 농업 기후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지도하게 된다.

/ 농민일보

## 돈화시 쪼대 사료화로 '부담'을 '재부'로

돈화시 사하연진 양가점농장지부의 선도로 운영되고 있는 양가점농업농사전업합작사의 작업장에서 분쇄, 먼지 제거, 압축을 거쳐 생산라인 말단을 통해 덩어리로 된 사료가 나오면 원래 가치가 없던 쪼대는 사육농가들에서 앞다투어 구매하는 '인기상품'으로 된다.

최근년간 돈화시는 쪼대 종합리용 및 소각 금지 사업을 전면 전개하고 농업 녹색발전, 순환발전을 부단히 추진했다. 사하연진 양가점농장지부의 선도로 운영되고 있는 양가점농업농사전업합작사는 '쪼대를 고기로 전환', '쪼대 소각 금지'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부단히 방법을 혁신하고 새로운 사료를 탐구했으며 쪼대 사료화 리용 대상을 인입했다. 총당지부 지도부 성원들이 관리, 경영을 조직하고 '당지부 + 전문합작사 + 사육농가 + 재배농가'의 쪼대 구매 및 사료 판매 모식을 형성했으며 '총집체가 주식의 51%를 차지하고 총민이 주식의 49%를 차지'하는 형식으로 주식연합, 주주배당 기제를 건립하여 총민과 총집체가 리익을 공유하도록 한 동시에 총민에게 일터

도 제공했다. 쪼대 사료화 대상을 경영한 이래 양가점농은 봄, 가을 화재 방지 압력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소, 양 사료가 부족한 난제도 효과적으로 완화했으며 소사육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사육 율가를 절감했다. 2023년 양가점농은 돈화시당위 조직부로부터 총급 집체경제 장대 부족으로 평의되었는데 획득한 부족자금 80만원으로 설비를 구매하고 창고를 확장함으로써 원자재 비축, 생산능력을 더한층 향상시켰다. 현재 매일 평균 500~700주머니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9톤의 쪼대 원료를 소모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 사하연진은 재배와 사육 결부, 농업과 목축업 순환, 녹색발전 경로를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쪼대 사료화 리용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부문과 총집체와의 연계성을 통해 소규모 농가들에서 쪼대 회수 리용 모식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쪼대 리용의 경제효익과 사회효익을 높이고 향촌 진흥에 '녹색합력'을 주입할 예정이다.

/ 손경해

## '채소의 고장' 산동 수광, '온실설계사' 요충지로

산동 리삼특(利森特) 농업과학기술회사 작업장은 조립식 온실하우스 자체 생산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작업장은 '중국 채소의 고장'인 산동성 수광시에 위치해있다. 이밖에 주문 생산하는 제품은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보낼 것들이다.

회사에는 온실하우스를 설계하는 전문설계사가 3명이나 있지만 방대한 시장 수요로 인력 부족을 체감한 왕수파 사장은 직접 회사의 수석 '온실설계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선 고개와 상담하고 관련 설계를 보여준 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팀과 원격으로 협력하며 최종 확인을 마치고 서둘러 30만평방미터의 온실하우스 주문 제작에 돌입했다.

"온실 설계라는 일자리 수요는 전적으로 수광의 채소산업 발전이 이끌어 낸 것이다." 왕사장은 자신이 진행했던 첫 온실하우스 설계 시공 업무를 회상했다. 채소박람회 참가한 타지 채소 재배호에서 '수광모텔'을 궁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루 300원의 비용으로 온실을 지어주길 요청했다.

채소박람회는 중국(수광) 국제채소과학기술박람회 의 략칭이다. 지금까지 24회 개최됐으며 국내외로부터 연인수로 3천여만명이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로써 '겨울난방식 온실'로 전



국 '채소혁명'의 서막을 연 수광은 선진기술, 생산표준, 시설채소 솔루션 등을 점차 전국에 보급해나갔다.

애니메이션 디자인과 원림 설계를 해왔던 37살에 나는 상평군은 현재 수광시화경농업과학기술회사에서 '온실설계사'로 고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동창들이 새로 짓는 온실의 설계와 도면 그리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 "이후 온실하우스 설계의 잠재적 수요가 크다고 느껴져 일하면서 공부한 결과 이젠 본업이

됐다."고 말했다.

수광시화경농업과학기술회사 사장 장동성은 상평군과 같은 전문설계사의 합류가 수광 특색의 '겨울난방식 온실'을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사장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수광을 벗어나 안휘성의 채소 농가를 도와 온실을 지었다. 흙을 파고 두꺼운 벽을 쌓고 비닐하우스를 덮는 수광의 전통적 '겨울난방식 온실'을 그대로 답

습했다. 다른 지역에 대한 설계, 건설 수요와 경험이 쌓인 지금은 온실하우스 건설 서비스 관련 표준을 결합해 더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온실하우스를 설계, 건설하고 있다. 과거 10메터가량 이었던 흙벽을 약 2메터로 줄이고 높이를 6메터, 경간 15메터로 조정했다. 토질과 자연환경에 따라 단열재도 다양하게 사용해 약 50%였던 토지 리용률을 70% 이상으로 향상시켰다.

온실하우스 설계, 건설 업계 규범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수광에 자리한 전국채소품질표준센터 등 기관이 주도해 <농업 사회화 서비스—온실 건설 서비스 규범>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규범은 지난해 9월 7일 발표돼 시행에 들어갔다.

"'온실설계사'에 대한 시장 수요가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련 일 자리를 마련했으며 우리도 온실하우스 설계, 건설 업계 인재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광시공공취업 인력자원서비스센터 직업기능감정과 리비 과정은 지난 2011년 수광시는 '온실 건설'이라는 전문직업을 개발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신청, 등록했다면서 현재 수광시에만 656명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신화사

## '황량어미지향' 매하입쌀의 향기 만방에 그득



넓게 이어진 1,000무 논밭은 마치 대자연의 아름다운 화폭을 방불케 하면서 농민들의 일년 동안의 희망을 그려내고 있다. 장백산기술, 송화강변에 자리잡은 길림성 매하구시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량질 입쌀 생산기지로서 '황량어미지향'(皇粮御米之乡)이라 불리고 있다. 력사적으로 매하입쌀은 '황량어미'로 불리웠는바 유구한 재배력사, 천혜의 자연환경, 량질의 품종으로 인해 이미 길림입쌀중의 정화로 소문났다.

북위 42도에 위치한 매하구시는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황금벼 생산벨트' 중에서도 '백금벨트'의 중앙에 위치한, 길림성의 벼 주요 생산지로서 재배면적이 무려 42만 3,000무에 달한다. 최근년간, 매하구시에서는 벼재배 구

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품종이 우수하고 잘 쓰러지지 않는 조숙벼를 재배하도록 농민들에게 권장했다. 또한 파종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건조 교체 관개를 하며 분기별로 비료를 주는 등 조숙 촉진 재배기술을 통해 벼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시켰다.

여러 세대 사람들의 정성어린 육성을 거쳐 매하입쌀은 이미 '제 11회 아시아경기대회 특수공급 식품', '국가급 친환경 식품', '중국 명품', '길림 유명 브랜드', '길림 로자호', '우수 입쌀 브랜드' 등 많은 영예를 따냈다. 오늘날 매하구 사람들은 천혜의 지리적 우세와 현대과학기술을 더욱 잘 결합시켜 매하입쌀 브랜드를 자기만의 '하드코워'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 유경봉기자